

세미나 자료집 11-S23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개발 연구
클로키움 자료집Ⅱ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안**

일시: 2011년 7월 28일(목) 14:00~16:00

장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회의실(10층)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세부일정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개발 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II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개회 및 발표자 소개	이기봉 연구위원
14:10~14:20	환영인사	이재연 원장
14:20~14:40	발표1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14:40~15:00	발표2	박성숙 (부천청소년수련관)
15:00~15:20	발표3	부은희 (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
15:20~15:5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5:50~16:00	폐회	이기봉 연구위원



목 차

1.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실천방안 ... 1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탐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39
3. 교육복지와 지역네트워크 55



주제발표 1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 협력 실천방안

김경애(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인가?

□ 미래사회와 미래 인재상

○ 미래사회의 성격

- 미래사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창조사회, 창조경제, 창의적 자본(creativity capital), 소프트파워(soft power) 등의 용어로 표현됨. 또한 역동의 범위를 강조하면서 세계화, 다문화, 디아스포라 등의 용어로 설명되기도 함. 다양한 문화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창발해내는 기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유비쿼터스 평생학습사회, 하이테크 학습사회, 신지식사회, 지식정보융합시대 등의 용어로 설명됨. 이밖에 포스트모더니즘과 생태주의의 확산도 사회의 한 특성을 이룸.

○ 창의적 글로벌 인재의 부상

- 이러한 사회에서 새롭게 각광 받는 능력은 기존의 전문적 축적 지식, 문제해결력 등을 벗어나 교과가 담보해내지 못하는 사회맥락적 능력,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개념화하는 능력, 기존의 지식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는 능력 등임.
- 따라서 알려진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문제를 만들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함. 즉 개발자(Developer), 혁신가(Innovator)를 요구하던 시대에서 창조자(Creator)가 필요한 시대로 전환된 것임(김창경, 2010).
- 게다가 창의성만 갖춘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권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감성까지 갖춘 인재가 부상함(현대경제연구원, 2009).
- 이러한 배경에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사회체제, 그리고 그 안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차세대 인재상 등이 고민되어 오는 가운데 미래사회의 인재상으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상'이 제시됨. 즉 창의적 글로벌 인재는 다극 체제로의 세계 경제 질서 이행, 다문화·다민족 시대의 촉진, 인력의 국가 간 이동 가속화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창의성과 감성을 갖

춘 글로벌 인재를 일컬음.

- 이러한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전문성, 글로벌성, 융합성, 문화지향성, 창의성 등임(원광연, 2010).

□ **미래교육: 창의 교육**

○ **창의 교육을 위한 핵심 요소**

- 창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을 가지며 (시각),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고(내용), 이질적인 집단과 협력하면서(과정) 학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질문 제기, 문제 정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 창의 교육을 위해서 학습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을 찾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창의 학습을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함.

※ 노벨과학상 선정 기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발견, 위대한 과학적 결과 (미카엘 솔만, 노벨재단 사무총장, 동아일보 2010.6.1)

※ “남들이 하던 것을 해봐야 빛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시작한 분야가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유룡, KAIST 교수, 중앙일보 2010.6.1)

-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이 요구됨. 예를 들면 창조를 이끄는 13가지 생각도구(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8)로 제시되는 적극적인 ‘관찰’, 세계를 그리는 능력, ‘형상화’,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창조적인 통찰이 나오는 ‘놀이’, 생각의 ‘변형’, 감각과 의식이 교차하는 ‘통합’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연습이 필요함.

○ **학습 내용: 다분야 내용이 융합된 통합교육과정**

- 다양한 학문분야가 융합된 통합교육과정이 요구됨.
- 일, 공부, 레저 등의 경계가 허물어진 열린 통합 교육이 강조됨.
- 인지 중심의 교육과정에 감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됨.
- ※ 창의적 과학 탐구를 위해서도 예술적 소양이 중요함(Bernstein & Bernstein, 2010).
 - 과학이라는 본업을 위해서도 예술이라는 부업이 중요함

- 노벨상 수상자들은 사진작가가 될 가능성이 2배 이상, 음악가가 될 가능성은 4배 이상, 미술가가 될 가능성은 17배 이상, 기능공이 될 가능성은 15배 이상, 소설가나 시인이 될 가능성은 25배 이상, 배우, 무용가, 마술사 등 공연가가 될 가능성은 22배가 높다는 통계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과정: 협력하는 경험, 이것이 가능한 환경**

- 창의성에 대한 초기 연구나 교육 실천에서는 그 개념이 개인적이고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주로 영재와 관련짓게 되면서 영재교육 측면에서 강조되었음(Feldhusen & Treffinger, 1980; Runco, 1999). 하지만 최근에는 창의성 개념을 보다 사회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창의성이 상호작용 가운데 발생하는 성질임에 주목함(Moran & John-Steiner, 2003).
- 이렇게 볼 때, 타고난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창의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로서의 지식뿐 아니라 탐구과정이 중요하게 대두됨.
-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교육적 경험을 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질적 집단들과 다차원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또한 학습 환경으로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이 구축되어 학습기회가 생활 전체에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일, 학습 준비로서 학습자가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메타학습)을 통해 학습역량을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
- 이처럼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학습생활에서 학습자들은 “서로 즐기고, 서로 느끼며, 서로 성장함에 집중”(한준상, 2009: 74)할 수 있어야 함.
- 이때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는 학습자를 위한 중요한 생활 및 학습 환경으로 주목됨. 지역은 학교 및 가정과 함께 학습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발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함.

□ **미래 학교: 네트워크 체제+학습조직**

○ **OECD 미래학교 모형**

- OECD에서는 현 학교체제가 19, 20C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넘어오면서 근시안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사람과 사회를 위

한 새로운 학교체제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래학교 모형을 고안해 왔음(OECD, 2001, 2003b).

- 미래 학교(schooling)에 대해서 3가지 방향의 6가지 모형이 제시됨. 먼저 현상태 유지 모형으로 1) 관료주의적 학교 시스템, 2) 교사 엑소터스와 학교붕괴, 학교 혁신모형으로는 1)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2)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마지막으로 학교 해체모형으로는 1) 시장지향적 학교 모델, 2) 학습자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회 등이 제시되었음(OECD, 2003b).
- 학교 혁신모형 중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모형은 학교가 지역 사회의 인적자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이들과 함께 지역의 학생, 학부모, 주민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펼쳐가는 모형으로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계를 강조한 모형임.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모형은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전문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지식 창조와 깊이 관련됨.
- 이상의 모형들을 통해 미래학교 모형으로 열린 구조로 내부-내부, 내부-외부 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는 가운데 학습조직의 원리로 지식을 창조해가면서 발전하는 핵심적 지역 교육센터형을 그려볼 수 있음. 이 안에서 교육의 주된 역할은 학습자들이 세계와의 연계망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스스로 창조해가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임.

○ 선진형 미래학교

- 국내에서 선진형 미래학교를 구상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에서는 선진형 미래학교에서 학습자 중심교육, 창의적 지식 구성,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돌봄 기능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함(강영혜 외, 2009).
- 또 하나의 연구에서는 미래학교 구상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학교유형 다양화를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체제 내에서의 학교 모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이혜영 외, 2008).
- 기타 미래학교 구상에 있어서는 글로벌 지향적이면서도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학교, 유비쿼터스 기반의 학교, 생태지향적 학교, 지능형 학교, 창의력 중심학교 등의 개념들이 대두됨.

- 특별히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을 고취시키는 학교 분위기, 학교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창의력을 진작시키는 풍토의 특징으로는 반대가 가능한 풍토(질문, 의문, 반대, 일탈, 파격, 변이의 자유 보장), 시행착오와 실패가 가능한 환경,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분위기, 협동이 진작되는 환경, 느낌과 직관이 존중되는 분위기, 융합이 진작되는 분위기, 다양한 유형의 인재가 중요시되는 분위기, 열린 소통 문화, 자율 경쟁 풍토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하나의 출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 협력**

○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네트워크형 체제**

- 미래 인재상으로서의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비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실천전략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교육체에 기존의 구조, 관행,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요구함.
- 사회구조, 사회체제, 문명발달, 기술개발 등과 같은 사회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교육체제의 모습과 기능을 새롭게 구안하는 가운데, 미래학교에 대한 기획에서는 외부 세계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면서 창의적 지식을 다루는 학교체제가 비전으로 제시되어 왔음. 복잡한 사회, 역동적인 변화, 불분명한 미래 전망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창의적 학습과정을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거시적 전망을 가지고 필요한 학습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교육지원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임(김경애, 2009b).
-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 협력은 교육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기획 가운데 우선적으로 채택 가능한 실천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해외 학교-지역사회 연계 정책 사례들**

- 영국: 창의 파트너십*(Creative Partership), 교육투자우선지역(EAZ, Education Action Zone), 우수학교 만들기 프로젝트(EiC, Excellence in Cities), 아카데미(Academy) 설립 등

* 창의 파트너십(Creative Partership)은 영국의 교육부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공동으로 창의성 교육방안을 연구한 끝에 제시한 방안에 따라 예술가 · 건축가 · 과학자 등이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제도임.

- 잉글랜드: ‘연결 서비스(connexions service)’ 정책 사업*
- 홍콩: 첫 자을 민간 고등학교인 홍콩창의력학교(Lee Shau Kee School of Creativity)†
- 프랑스: 교육부-국가문화재센터 협약, 우선교육지역(ZEP), 우선교육네트워크(REP), 그리고 이 둘을 포괄하는 우선교육(EP) 등‡
- 일본: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력 정책이 1971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學社連繫)에서 출발하여 1996년 학사융합(學社融合), 학사협동(學社協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함.(양병찬, 2007: 2)

□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의 의의**

○ **미래형 교육체제를 향한 하나의 실천 전략**

-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협력이라는 주제는 사회의 변화, 요구되는 인재상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체제의 변화라는 연결된 구조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작은 실천 전략이지만 그 파급력은 매우 클 수 있음.

○ **학생: 학생을 위한 창의 친화적인 다양한 만남과 경험 촉진**

- 학생들은 다양한 적성과 흥미를 가졌는데 반해 교사 집단은 이미 적성을 살려 하나의 직업군을 선택한 집단으로서 상대적으로 동질적 특성을

*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대학,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연계 파트너들(Connexions Partnerships)은 개인 조언자(Personal Advisers, PAs)를 고용하여 주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16-18세*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함(CSNU, 2002). 개인 조언자들은 교육 및 훈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학습 경로, 경력 선택 등 성장 기회에 대한 정보, 조언, 가이드 등을 제공함(Hoggarth & Smith 2004: 79). 이들은 청소년들의 부모, 기타 양육자, 가족들과 공조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 그룹, 지역사회 기관들, 상업 기관 등과도 네트워크를 맺어 역할을 수행함.

† 핵심 교육과정으로 인문학* 과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통합인문학 외에 C-POP(비주얼 아트, 필름&디지털 아트, 멀티미디어 아트, 환경&공간 아트)라는 창의력 교과 과정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학교의 교과과정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예술 교육은 외부의 예술가에게 직접 배움.(EBS 세계의 교육현장, 2010.7.6)

‡ 프랑스 교육부는 ‘국가문화재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고 향후 국가문화재센터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96개 문화재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를 마련하기로 함.

보임. 이에 학생들은 외부 다양한 어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 성격, 적성의 역할 모델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음.

- 사회의 각 분야마다 중요하게 인정되는 소질과 능력이 다름. 학교에서는 물론 학업 성적이 우선시되며, 온라인 게임의 세계에서는 게임을 잘 하는 사람이, 바둑계에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운동장에서는 체육을 잘 하는 사람이 인정됨. 이에 학생들은 다양한 만남 및 공간에 맞닥뜨릴 때, 그 안에서 축진되는 다차원적 인정에 놓일 수 있고, 다양한 개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학업성취 결과를 평가하고 선발기제를 작동시키는 곳으로 인식됨. 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남과 공간에서 학생들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임.
- 학교 밖에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학생으로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소간 일탈하는 경험도 해볼 수 있음. 창의성은 이처럼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접할 때 발현되기 쉬움.
- 학년이 바뀌거나 진학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알게 된 어른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

○ **학교: 다양한 인력의 지원을 통한 학교의 창의성 교육 전문성 강화**

- 학교의 교육력 강화: 사회적으로 학교에 요구되는 교육적 전문성이 심화되고, 기타 업무도 많아지는 가운데 학교는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특정분야 전문성과 다양한 노동력을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학교는 창의성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됨.
- 수준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마다 양질의 풍부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만들어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시간, 시설, 전문가 확보 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김윤정, 2010).
-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사회에서의 다각도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음.

○ **지역: 지역의 교육책임성 제고, 창의적 지역 인력 양성, 지역사회 미래 입지 강화**

-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2006년 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해 본격적으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진 상황임.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음. 또한 지역의 힘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적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 지역주민들은 선거뿐 아니라 일상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역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통해서 교육자치가 보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실현될 수 있음.

2.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관련 정책 및 실천 현황

□ **교육정책에서의 일관된 창의성 강조**

○ **해묵은, 하지만 미래사회에서 절박한**

- 교육정책에서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창의’가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창의교육은 중요한 방향이었음. 하지만 주로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실제로 지금까지의 교육실천 과정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반성과 지적이 팽배함.
- 현 시점에서 창의교육이라는 기치는 향후 교육이 창의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면 국가 발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위기의식 가운데 제안되고 있음.

○ **교육정책에서의 창의교육 강조 사례**

- 1986년 문교지표에 ‘창조력을 기르는 과학기술교육’이 포함됨.

- 1993년 국회예산제안 설명에서 강조한 교육역점사업에 교육의 질적 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지원의 일환으로 '중등 창의력 발휘 중심 개선' 이라는 항목이 포함됨(김기언, 2004).
- 1995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 '세계화와 정보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창의성계발', '대학의 창의적 발전', '초·중등교육에서 창의성 발휘를 위한 자율화와 다양화 교육' 등이 포함됨(김기언, 2004).
- 1996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서 교육개혁을 착근시켜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함.
- 1999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21세기 두뇌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새학교 문화창조, 인성·창의성 중심의 초·중등교육을 강조함.
-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3)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4)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시됨.
- 2010년 창의·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 양성을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강조함(교육과학기술부, 2010).

□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미진**

○ **창의성 교육과의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일부 정책 및 실천 사례**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관, 유적지·고적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을 받고 있음. 그리고 방과후학교에서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주말이나 방학 등에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학생들을 연계하여 보내고 있음. 또한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부모 봉사단뿐 아니라 기업 자원봉사단, 주민 봉사단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문화부에서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전통공예, 디자인, 사진 등 영역의 문화예술 전문강사를 파견해오고 있음. 예술강사는 2010년 4,150명에서 2012년 7,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술강사 수혜율은 35%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임(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 하지만 창의성 교육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최근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가 확대되는 경향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로 대두됨.

□ **최근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조 확산**

○ **2009년 개정교육과정**

- 각 교과 활동에서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유의하도록 권고됨. 이에 따라 각종 직접 체험 활동을 지역사회의 여러 현장과 연계할 필요성이 더욱 확대됨.
-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음.
- 교육지원청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음. 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개설 전공과 유사한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실습과목을 편성·운영할 때,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현장 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권유되고 있음.

○ **학부모정책 추진방향(교육과학기술부, 2009a)**

-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교육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경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함.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함.

○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2010).**

-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가 제시되었음
-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예술교육을 목록화한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ARM, Arts education Resources Map)를 개발하고,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통한 창의적 예술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며, 대학생 문화봉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 등을 발표함.

○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국무총리실, 2010a)**

-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기업·대학·공공기관 등과 체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교육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 방안에서는 먼저 주체별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 기업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을 활성화하며, 2) 대학은 지역사회 내 교육청-학교-대학 간 교육활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교수 및 대학생들이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특강, 상담,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대학 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소유 교육자원(수련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교육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교육자원의 지역 균형 활용을 도모하며, 4) 정부 부처 및 공공연구기관 단위에서는 여성가족부(청소년 수련 시설),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시설), 환경부(국립공원 등 환경 시설·인력)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는 등 자원 활용 활성화

화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및 공공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DB화하여 초·중등학교 체험활동에 제공하며, 범정부적인 「창의·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교육자원 활용·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교육자원정보종합 사이트(창의체험종합정보넷)」를 설치하여 교육자원 정보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역 단위에서 학교와 교육지원 희망 기관을 연계시키는 허브가 되도록 역할을 정립할 것을 제안함.

3.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에 있어서 제한점

[정책적 측면]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보는 통합적 시각 부족
- 거시적인 틀에서 개별 방안들이 통합될 수 있는 조정책 미비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음.
 -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창의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함. 하지만 정책 차원에서 발표가 될 때에는 이러한 안들이 통합되어 큰 틀에서 상호 관련성 있게 종합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단편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보면 곧 지역마다 창의체험자원지도,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 교육복지자원목록 등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각각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됨. 각종 협의체, 센터, 바우처 등도 하나의 틀 안에서 각기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통합 및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조정력 발휘 미진
 - 이러한 조정, 연계 및 통합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조정력도 매우 중요함. 지역 차원에서 유관 정책들을 묶어내고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드럽게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의 고민이 요구됨.
- 열린 학교구조를 위한 행정적·법적 정비 필요

- **각종 학교 외부 인력의 활용과 관련한 규칙 등의 법적·제도적 근거 미흡**
 - 학교가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상호간의 역할과 책무 구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지역연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안전사고, 각종 위험상황에서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인력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역할범위, 의무규정, 처우 등에 대해서 통일된 안이 없는 가운데 개별학교에서 기준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지역사회 인력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필요한 윤리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학교교육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필요한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에서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보험 등 기반이 되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행정 지원체계 미비**
 - 학교-지역사회 간 연계·협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및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들은 각기 기관의 성격에 따라 행정처리 방식이 다름. 이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 문제로 상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음.
-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현장 착근 필요**
- **올바른 방향성과 취지, 실천 가능성은?**
 - 창의교육의 필요성, 창의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특히 창의교육의 필요성과 창의교육을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소수이겠지만, 창의교육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창의교육을 진작시키는 문제는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제 전체, 평가와 선발시스템, 학력인정방식, 전사회적 지원과 관심, 사회의 각종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학습 등 광범위한 관련 영역 및 관계자들과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범사회적

으로 이 이슈를 공론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해가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됨.

- 기존 교육정책, 교육관행과 창의교육 방안 간에 괴리가 있는 지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야 할 것임.
- 현장에서 정책방안들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방안, 현장 여건별 차이를 둔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현장의 의지 발현이 중요**

- 교육정책이 결국 실효성을 거두는 지점은 한 학생이 학습하는 장면이 있음. 그 학생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이끌어내고 학습상황을 만들어내는 교육 참여자들의 인격, 사고, 감정,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현장에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창의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어도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철학 공유를 통해 정책 방안들의 올바른 정착 도모**

-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정책은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서 적용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거나 파생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함.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 방침이 되었을 때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풍경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어떤 경우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진정성, 헌신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 지역주민, 학부모, 지역사회기관, 대학, 관공서 등의 관심과 노력을 모아내서 그야말로 ‘마을이 아이를 키워내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 가능한 길에 들어설 수 있음. 어떤 경우에는 우수한 지역자원 연계에 방점을 두면서 자원들을 모아내다가 학교와 학생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관, 또는 자녀에게 혹여나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기대를 품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게 되면서 학교의 교육 분위기와 문화가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음.

- 따라서 교육정책의 밑바탕에 깔린 철학, 가치관, 취지, 전제와 전망 등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그리고 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신성을 공유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들은 각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마련하도록 하는 접근을 취해야 함.

[실천적 측면]

- **학생과 사회의 창의성 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학교 교육과정 및 구조**
 - **개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과 어려움**
 - 기본적으로 학교 구조가 집단적, 보편적 접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에, 학생들의 필요와 특성을 안다고 해도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님.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웠음.
 -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들**
 - 기자재, 방음시설, 연습실 등 실기가 가능한 공간과 도구 부족으로 예술, 체육, 과학(실험), 기술 교육은 강의식 수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 특정 분야들은 학교교육과정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일례로 예술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실용음악, 디자인 등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학교 내 교육은 이를 포함하기 어렵고, 예술고, 예술중점학교, 일반학교 등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음.
 - **학교 생활과 창의성에서 요구하는 특성 간의 조화 문제**
 - 창의성 진작을 위해서 요구되는 풍토와 환경 가운데 모험, 다르게 생각하기, 도전, 이탈, 협력 등이 때로는 기존의 학교에서의 생활방식과는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특히 창의성의 출발은 기존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지점에 있는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나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경험 부족**

○ **학교-지역사회 간 정보 부족**

- 학교는 지역사회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기관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 학교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교사들이 근무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

○ **지역사회에서 교육주체로서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중에서 학교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교육에 관한 한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가져 왔음.
- 이에 지역 내에서 학교 외 타 기관들은 각 분야별 내용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부족했기에 교육적 전문성을 심화하기 어려웠음.

○ **협력 가능한 방법에 대한 노하우 부족**

- 학교는 그동안 지역사회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들도 많았으나 실제 협력해본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지역사회기관들 역시 직접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부족했음.

○ **학교-지역 기관 간의 경쟁 구도**

- 방과후학교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지역사회기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에서 참여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 확보를 놓고 학교와 경쟁하는 구도에 놓이기도 함.

□ **지역사회 자원의 편중과 분배 문제**

○ **지역 격차에 따른 교육 자원의 심한 격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사회구조, 삶의 양식, 사회 발전 정도에 따라서 가용 가능한 교육자원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큼.
-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과 복지 측면에서의 지역자원은 확보 가능하지만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자원에 대한 정보 부족**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사업 관련 자원들에 대한 정보가 집결되지 않아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각 자원의 신청시기, 활용 조건, 특성 등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음.

○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에 상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조정해주는 곳이 없기에 때로는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창의성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원원전략 부족**

○ **외부 자원 활용시 외부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발생**

-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의 교사와 지역사회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이전의 교육과정과의 연결선상에서, 그리고 학생들 특징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가운데에서 운영되어야 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학교에서 지역자원 연계 시 완전 위탁하고 교사는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함.
- 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단순 연계 실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호작용과 협력 가운데 창의성 교육을 위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보다는 일방적인 지원 요청 중심**

-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해야 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기관에서는 자신의 실적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상호 밀접한 협력 관계 속에서 교육의 질적 제고, 학교의 교육력 제고, 지역사회기관의 교육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의 활력과 발전이라는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내외 및 이동에서의 안전 문제**

○ **교내외 활동에서의 안전 문제 우려**

- 학교가 외부인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될 때 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폭력이나 위험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음. 하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활용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음.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학부모 봉사단체가 활성화되면 이들이 학교지킴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학교 외부로의 체험활동도 안전상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 자원과 연계되면 보다 많은 어른들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임.

○ **학교 밖으로의 이동 문제**

- 학교에서는 외부 자원 활용에 있어서 장벽 중 하나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창의성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사교육 시장의 확대**

○ **유관 사교육업체 증가**

-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인식이 확대되면서 고적, 문화유산지, 박물관 등의 탐방 프로그램, 각종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교육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전문 예술교육, 체육교육, 기술교육 등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음.

○ **창의성 발달기회에서의 차이와 창의성 격차 심화 가능성 대두**

- 창의성 교육 영역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학부모의 전문적 관심과 노력에 따라 학생들의 경험 및 기회 정도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4.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 방향

-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구상의 일환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제에 접근함.
- 활발한 지역 연계를 통해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 지역주민들이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면서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함.
- 학교와 지역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 창의사회에서의 창의교육의 근간을 조성해 나가는데 일조함.

□ 주요 방안의 목록

[국가 정책 지원]

방안 1. 창의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설계

- 1-1 미래학교 모형 구상 및 실험
- 1-2 창의 친화적·개방적 학교 공간 및 시설 설계

방안 2. 창의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강화

- 2-1 열린 학교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2-2. 학교단위 자율적 경영체제 강화
- 2-3. 정책적 연계 및 자원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안 3. 창의교육을 위한 인적 인프라 조성

- 3-1 교사 의식 및 역량 강화
- 3-2 교육참여 풍토 조성, 교육기부 운동 확대

* 학교와 지역연계를 다루는 본 논의의 속성상 몇 가지 방안은 교육계를 벗어나 범사회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제시한 방안의 범위가 즉시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보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제시된 방안의 실천주체가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호 협력해야 하지만 편의상 국가정책 차원, 학교단위, 지역(교육지원청)·광역(시도교육청) 단위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함. 실천주체가 복수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위 구분에 포함시켰음.

[학교 단위]

방안 4.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

- 4-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의 다양화에서 출발
- 4-2 외부 전문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통합교육과정 운영
- 4-3 전문가 연계를 통한 특별교육(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등)의 활성화

방안 5. 학생중심의 창의성 교육 기회 구안

- 5-1 학생들의 외부 활동 기회 확대
- 5-2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내 대안교실(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5-3 유-초-중-고 학교급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 다양한 인사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 6-1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6-2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교육지원청), 광역(시도교육청) 단위]

방안 7. 창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연계 구심점 역할

- 7-1 교육자원 연계 허브 역할
- 7-2 평생교육과 교육봉사의 선순환적 연계

방안 8. 창의교육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 인프라 구축

- 8-1 교육지원청의 창의적 학교 운영 및 문화를 위한 컨설팅 역할 강화
- 8-2 교육활동 참여 외부 인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 학습동아리, 매뉴얼 등 지원
- 8-3 학교-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성 프로그램 공모 지원
- 8-4 지역사회자원의 교육친화적, 탄력적 운영 촉구

방안 9. 지역 내 창의교육 풍토 조성

- 9-1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논의 구조 확립, 사회적 합의 도출
- 9-2 지역 안에서의 협력 문화 조성

[국가 정책 차원]

방안 1. 창의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 설계*

1-1 미래학교 모형 구상 및 실험

- 근대학교의 기본 구조, 교과, 운영방식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유형의 학교모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검토하고, 실험하여 적용 가능한 모델을 확산함[†].
- 학교에서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학교에서 지역사회 활용) 모델, 지역사회 학교(지역사회에서 학교 활용) 모델을 통합하여 학교중심의 지역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적 모델을 구상할 수 있음[‡].
 - ※ 샌디에고의 지역사회기반학교개혁 모델(Community - Based School Reform Model: U.S., San Diego Unified School District): 연구에 바탕을 둔 교수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교사·학생·학부모·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친근한 이웃의 학습센터로서 자리매김함.
- 창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역 연계 모형을 개발하여 확산함. 예를 들면 창의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연계방식이면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방식들에는 1) 학교-지역사회 연계 모형, 2) 학교 간 연계 모형, 3) 학교급간 연계 모형, 4) 지역사회 공동 프로그램 운영 모형, 5) 학교 연합 모형,

* 본 논의의 주제는 ‘창의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방안’으로서 미래학교 혹은 교육체제 등 거시적인 관점은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단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교-지역연계라는 것이 미래학교·교육이라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실천적으로 구상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배경 혹은 전제의 차원에서 일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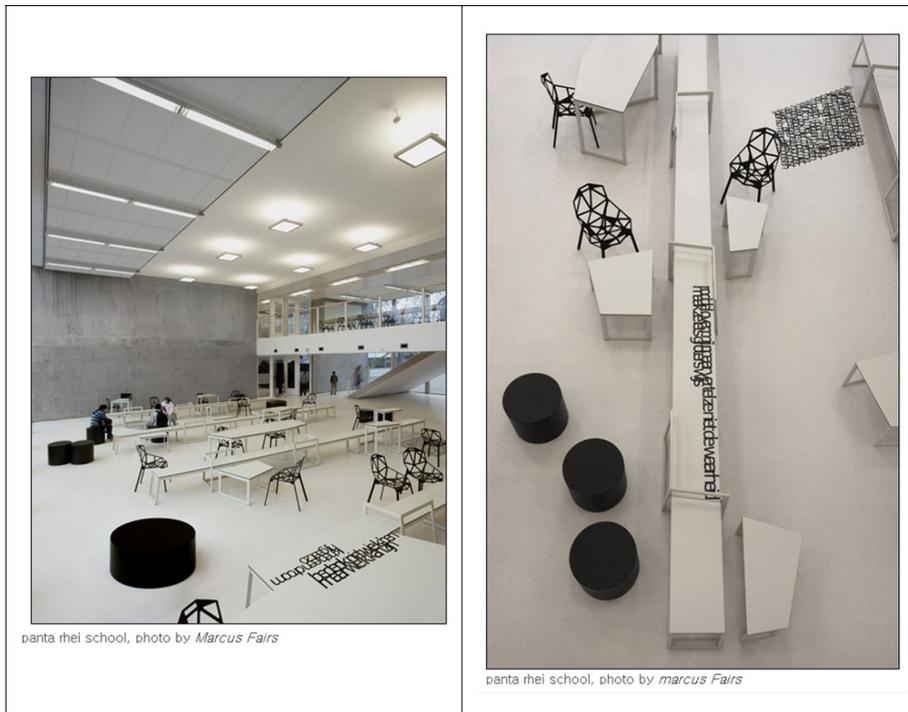
† 강영혜 외(2008)는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 탐색을 통해서 1) 학교중심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 2) 학교복합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수요 흡수형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함.

‡ 학교중심의 지역학습공동체 유형에 대해서는 1) 단순/물리적 시설개방형: 운동장, 도서실 등 개방, 담장 허물기, 학교 공원화 등, 2) 인텔리전트 복합화 시설 활용형: 시설 개방, 도서관화정보서비스, 주민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주민회의실 등 제공, 3) 학교평생교육형: 학교평생교육(학생, 주민, 학부모 대상),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등, 4) 지역사회 연계융합형: 지역사회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과 평생교육 결합, 평생교육기관과의 특약연계, 학사와 융합한 평생교육 등의 안이 제시된 바 있음(양병찬, 2007)

6) 거점학교 혹은 거점기관 모형, 7) 각종 파견제(예술교사 파견제, 상담교사 파견제)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음.

1-2 창의 친화적 · 개방적 학교 공간 및 시설 설계

- 창의성 개발, 의사소통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학교 공간 및 시설 모형을 구안함.
- 기존의 학교 공간에서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식당, 휴게실, 운동장, 복도, 숲 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재설계 및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
 - ※ 예시) 2010년 개교한 A학교는 모든 교실과 교실 사이에 프로젝트룸이 있어서 두 교실의 학생들 간, 교사들 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교실 사이는 벽이 아닌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음.
 - ※ 예시) “시(poetry)”라는 모티브로 설계한 학교: 독일의 실내 건축가 회사인 i29가 설계한 네덜란드의 암스텔빈에 위치한 학교 내부



방안 2. 창의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강화

2-1 열린 학교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전체 혹은 프로그램 일부를 민간단체, 지역사회,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함.
- 학교 부적응 학생, 중도탈락 위기 학생 등을 위한 교내 창의적 맞춤형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함.
-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인사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가칭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인력 은행 운영 규칙”, “멘토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규칙” 등).

2-2. 학교단위 자율적 경영체제 강화

- 학교가 학생,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의견과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창의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자율적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감.
-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보장을 확대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권한을 강화함.
-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화를 통하여 필요할 경우, 팀티칭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확보하거나 학습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수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협력할 때 필요한 행정처리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줌.

2-3. 정책적 연계 및 자원개발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여 동 주제로 정례 협의회를 운영함. 이를 통해서 각종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공동 정책 사업을 발굴·실행하며, 사회적으로 이슈화함.

- 지역별 교육자원의 질과 양에서 격차가 큰 상황에서, 자원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타 부처와의 협력 하에 각종 지역 개발 사업들이 취약지역에서 이루어져 이들이 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사회 곳곳에 교육적 기능을 하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나감. 예를 들면 에듀테인먼트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식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고학력 전문가들이 비영리 단체를 결성하여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방안 3. 창의교육을 위한 인적 인프라 조성

3-1 교사 의식 및 역량 강화

- 교사들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창의성 신장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학생들과의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변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파커 J. 파머’의 CCR 재단 상임 디렉터인 테리 챗시(Terry Chadsey)는 창의적 가르침의 원천은 바로 교사의 자의식으로, 교사가 자신의 자의식을 들여다보고 창의적 변화를 먼저 겪고,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교사, 학습자, 그리고 학습 주제 사이에 창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Chadsey, 2008). 모스크바 국제영화학교 ‘올가 리프만(Olga Lipman)’ 교감 역시 “무엇보다 창의적인 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만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것처럼 교사도 같은 도전을 경험해야 한다고 제시함(2008 서울 청소년 창의성 국제 심포지엄).

* 2007년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법이 마련된 이후, 2010년 현재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289개임. 참고로 영국에는 런던에만 2009년 현재 5,5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런던 GDP의 5~10%를 담당함(서울신문 2009.5.18). 현재 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는 어린이 문화예술학교, 예술과 시민사회(방과후학교), 외우북페스티벌조직위원회(독서 문화 프로그램, 독서 토론 프로그램 등) 등 다수 있음.

-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창의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직무·자격 연수에 반영함.

3-2 교육참여 풍토 조성, 교육기부 운동 확대

-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정부에서 운영하는 체험시설·프로그램, 기업·출연(연) 등의 연구·생산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킴*.
- 기업의 교육기부 및 지원: 기업의 사회봉사활동이 단순 금품 및 물품 지원을 넘어서서 기업에 축적된 ‘지적자산’과 ‘인적자원’을 차세대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도록 추동함. 또한 기업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독려함.
 - ※ 미국: 초·중등학생들이 각종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기업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

“ 과학 프로젝트를 하는데 7학년인 우리 아이가 친구들 6명과 같이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겠다고...한달 동안 스포라이트, 마운틴듀, 콜라, 콜라라이트, 환타 등 8개 음료수에 대해서 천, 쇠, 생선뼈 등 열 몇 가지를 넣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스포라이트 본사 연구실에 컨택해서 성분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어요. 그쪽에서 너가 뭐하는데 이걸 필요로 하니? 학교 프로젝트로 한다는 것을 적어서 담임교사 사인을 받아서 팩스로 보냈더니 성분을 보내 주더라구요.” (미국 워싱턴주 거주 교민 면담, 2010년 7월)
 - ※ 핀란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계획서를 유관 기업에 제시하면 이 기업에서는 검토하여 선정된 계획서에 대해서 연구경비 전액을 지원함.

* 공공기관의 ‘교육기부’ 협약 사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교과부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하여 소관 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 23개 기관)의 교육기부 운동 참여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약함. 기업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사례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한상공회의소, 교육과학기술국실천연합이창의·인성 교육과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위해 초·중·고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육·연수·직업체험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DE : Donation for Education)협약’을 체결하였음.(2010.8.10 공감코리아)

(핀란드 유학생 면담, 2005)

- 대학의 책임 있는 참여: 대학생들 개별 단위가 아닌 학과, 대학, 대학교 등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위와 창의교육을 위한 아동·청소년 교육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함. 대학교수, 대학원생, 대학생들이 전공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대학생들이 소외계층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멘토로서 활동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학교 단위]

방안 4.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

4-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의 다양화에서 출발

- 비교적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용이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시설,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 전문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음.
- 사회·문화단체, 동호회 등의 다양한 인력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사·지원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함.
- 외부자원을 연계·활용할 때, 외부에 대한 단순 위탁이 되어서는 교육적 효과와 연계·협력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교사와 외부 자원 간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함. 그 가운데 상호 역할분담을 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이해, 외부 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의 내용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가운데 교육의 질적 수준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4-2 외부 전문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통합교육과정 운영

- 과학 등 일반교과와 해당 내용과 부합하는 예술, 문화, 체육, 문학 등 자기 표현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영역 간의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함. 예를 들면 국어 수업과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전통

공예, 디자인, 사진 등을 통합하여 수업하고, 영어 교과와 연결해서 만화 창작을 실습하며, 과학 시간에 관찰한 자연물을 모티브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통합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지역에서 실제 실천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
 - ※ 예시) 미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진행하는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자원 재활용과 같은 주제를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동시에 학교 주변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여 학습함(홍영란 외, 2006).
- 통합교육을 위해 계획 수립, 교내 협의, 외부 전문가 섭외, 공동 프로그램 구상, 역할 분담, 파일럿, 수업 실시, 평가 및 피드백 등 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함. 이 프로세스 안에서 문화부 파견 '예술강사', 지역의 특별강사 등 외부 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3 전문가 연계를 통한 특별교육(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등)의 활성화

-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소질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도출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지역에서 찾아서 특별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학생들의 요구가 있지만 학교 내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를 들면 연극, 영상, 호신술, 염색, 요리, 경제 등의 영역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문화부에서 진행하는 예술강사 파견과 연계할 수 있음.
- 지역 기업과 학교 간 1사 1교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음. 학교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창의체험활동 내용과 유사한 지식 혹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1사 1교 협정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강사 파견, 멘토링, 장학금 지원, 동아리 교류, 학생들의 기업방문 등 다양한 교류 방식을 구상할 수 있음.

방안 5. 학생중심의 창의성 교육 기회 구안

5-1 학생들의 외부 활동 기회 확대

-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 특기 등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다각도의 기회

를 연계함. 예를 들면 학교 동아리가 기업이나 지역사회의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지역의 어른들 동아리와 학생 동아리 간에 자매 결연을 맺거나 공동 활동을 하는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함. 예를 들면 지역 오케스트라와 학교 오케스트라의 협연, 미술동아리의 공동 전시회 개최, 독서동아리의 공동 행사 등 다양한 연계방안이 있을 것임.
-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연계하여 활용함.

5-2 위기 학생들을 위한 교내 대안교실(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학교생활 부적응·위기 학생들 중에서는 기존의 학교 교실수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당하면 극단적으로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음. 하지만 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의 개별적인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특기로 살려나갈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서 이들이 의욕을 되찾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의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이때 각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이수를 대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3 유-초-중-고 학교급 간 네트워크 활성화

-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진학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됨.
-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프로그램, 공동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특기·적성·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예시) 미국 실리콘 벨리의 Challenge 2000 프로젝트(홍영란 외, 2006).

- 초등 1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교육체계를 몇 개로 묶은 르네상스 팀을 조직

- 르네상스 팀에 초, 중, 고 1개교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공
 - 학생,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모 등이 협력하는 가운데 네트워크 운영
 -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
- 지역 내 유-초-중-고 학교급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보조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함.
- ※ 미국 영재반(GT, Gifted & Talented)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보조지도자 역할을 할 기회를 갖게 됨.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도자(리더십) 교육을 받는 것임.(김재홍, 2010)

방안 6. 다양한 인사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

6-1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학교-학부모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 예를 들어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는 간사를 유급으로 배치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사(예를 들어 주별 조찬 클럽 미팅, 학부모 워크숍, 학부모 대학, 학부모 감사 저녁, 조부모의 날, 학부모의 날, 가족 수학의 밤, 가족 과학의 밤 등)를 개최할 수 있음. 또한 학교에 이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
- ※ 예시) 미국 Detroit Annenberg Schools of the 21st Century(S21C)의 학교-학부모 강화 전략(홍영란 외, 2006).
- 학교에 학부모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학부모, 학교 간 연락을 주업무로 하는 연락원을 유급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학교행사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주별 조찬 클럽 미팅, 학부모 워크숍, 학부모 대학, 학부모 감사 저녁, 조부모의 날, 학부모의 날, 가족 수학의 밤, 가족 과학의 밤
 - 학교,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모든 아동의 교육에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가 보다 많은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지역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과 연대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대관계

를 강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 아버지들이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등에 운동, 문화예술, 각종 탐구 프로그램 등 방과후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이로써 초·중학교에서 교원의 성별비율에 대한 우려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임.
 - ※ “미국인들의 삶에서 직장생활만큼이나 자녀와의 방과 후 활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가면 축구, 야구, 수영, 음악 등 과외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중략)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보좌관이었던 앨런 허바드는 2007년 11월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강력한 욕망이 없었더라면 백악관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혀 당시 한국특파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김재홍, 2010).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

6-2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운영

-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역 인사와 학부모들로 분야별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과목별 수업 지원(미술, 수학, 사회, 국어, 영어 등),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 등), 학교 내 안전 지원, 학교행사 지원 등의 영역이 가능함.
- 자원봉사단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예를 들면 학교의 요구사항, 학생들의 특징과 요구사항, 학교시설이용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의 소통에 매개가 되어주는 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자원봉사단이 직접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기본교육을 실시함. 예를 들면 해당 학교 아동·청소년들의 특성, 학교시스템 이해, 학생과의 대화 방법, 수업방법, 교사들과의 협력 방법 등 다양한 주제가 연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분야별로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함. 이때 동아리 모임 공간, 소정의 간담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 서울청계초등학교 학교불런티어(VIPs: Volunteers In Public Schools)(김득영·박경숙, 2009)
 - 학교불런티어를 유형화해 보면 1) 게스트 티처형=학습지원×전문적, 2) 학습

어시스턴트형=학습지원×일반적, 3) 시설 관리형=환경지원×전문적, 4) 환경 서포터형=환경지원×일반적이라는 4형태가 됨.

- 학교볼런티어는 활동 가능한 분야를 신청하고 학교볼런티어 은행에 등록함.
- 활동분야별로 볼런티어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예를 들면 수업지원 동아리로는 미술,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재량활동 동아리가 운영되었음.(기타 영역으로 책읽기 지원, 등하교 안전지원, 학교행사 등이 있었음.)

[지역(교육지원청), 광역(시도교육청) 단위]

방안 7. 창의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연계 구심점 역할

7-1 교육자원 연계 허브 역할

- 네트워크 구심체로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담당부서, 네트워크 조정자 등을 지정·배치함(창의체험 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음). 이곳에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내 교육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각종 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적절하게 연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각종 실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문화예술교육자원지도, 창의체험자원지도, 교육복지자원목록 등을 통합하여 지역 교육지원 자원지도 및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함. 자원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이때 자원지도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 혹은 나열에 그쳐서는 활용도가 떨어짐. 기본적으로 가능한 자원 유형(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대상, 운영시기, 담당자 연락처 등뿐만 아니라 기관의 특성,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연계했던 기관들의 평가, 장단점, 특성, 기대되는 결과, 활용상의 유의점 등을 소상하게 안내하여 학교에서 교사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의 강사 풀(pool)과 지원인력 풀(pool)을 관리함. 전문직 은퇴자, 교학력 주부,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전문직 학부모 등 강의 영역별, 지원 분야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 인력 풀(pool)을 조성하여 관리하면서 학교와 연결해줌. 또한 학교에서 활동성이 심한 교육 프로그램,

외부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교사를 자원 받아 명단을 관리하다가 학교에서 요청하면 연결해줌.

- 교육과학기술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목록화하고 필요한 부문 간 연계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지역 안에 교역지대로서 “창의만남의 장”을 조성함.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 참여자들(교사, 지역기관들의 담당자, 실무자, 방과후교사, 각종 교강사, 자원봉사자, 멘토, 코치 등)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머물면서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며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안이나 교육지원청 안에 마련함.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들이 학교-지역 간 이동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때 기사, 안전 보조인력 등을 함께 지원함. 차량은 별도로 렌트할 수도 있지만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통근차량, 종교단체 차량 등을 시간을 안배하여 빌려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7-2 평생교육과 교육봉사의 선순환적 연계

- 많은 시도에서 성인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학습동아리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강사, 보조강사, 운영자, 지원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연계해줄 수 있음. 이는 참여하는 성인과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학습동기를 북돋워주고 학습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음.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학생들을 위한 강사, 멘토,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를 통해서 배출된 지역주민과 학부모 인력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투입하였음. 이는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동시에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지역의 자생적 순환구조를 염두에 두고 세운 전략이었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09)

방안 8. 창의교육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 인프라 구축

8-1 교육지원청의 창의적 학교 운영 및 문화를 위한 컨설팅 역할 강화

- 창의교육과 관련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컨설팅에 있어서 주요 주제로 1) 창의성을 진작하는 열린 학교 구조 및 열린 문화, 2) 창의 교육을 위한 학교 운영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3) 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의미와 방법 등이 있음.
- 창의 교육을 위한 지역 연계는 학교에서 필요를 느끼고 요청할 때 할 수 있어야 함. 단 학교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법을 모색할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법론과 노하우에 대해서 컨설팅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지원청이 창의적 학교 운영 및 문화와 관련하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 내에서 이 분야에서 지식, 경력 등을 쌓은 교원, 지역주민, 장학사, 기업인 등이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 체계를 수립함.

8-2 교육활동 참여 외부 인사들을 위한 전문 연수, 학습동아리, 매뉴얼 등 지원

- 교육지원청(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멘토, 보조교사, 운영자,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함. 창의성 교육 방법론, 학교사회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자로서의 윤리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함.
- 연수뿐 아니라 관련 내용들을 활동지침, 매뉴얼 등 참고자료로 구성하여 제공함.
-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아쉬운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적으로 컨설팅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고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활동 참여 외부 인사들 간의 자발적 학습동아리 활동을 촉진함. 이들이 교육적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를 결성하여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간, 예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도화함.

8-3 학교-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성 프로그램 공모 지원

-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하여 상호 이해하고 지역의 특수성,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취지에서 ‘학교-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창의성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공모를 통해서 발굴 및 개발된 통합교과 프로그램, 동아리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확산함.

8-4 지역사회자원의 교육친화적, 탄력적 운영 촉구

- 지역사회에 각종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 청소년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도서관, 고궁이나 유적지 등에서 학교 및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
- 각종 시설들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위기 조성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협력함.

방안 9. 지역 내 창의교육 풍토 조성

9-1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 확립

- 지역 내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교육을 함께 구상하는 안정되고 정례화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협의체는 지역 단위, 혹은 광역단위, 필요시에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단체, 학부모,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 분야의 사람들을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융합이 일어나 창의적인 교육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함.

9-2 지역 안에서의 협력 문화 조성

-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상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과 분배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함.

참고문헌

- 강영혜 외(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학기술부(2009a).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c).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국무총리실(2010a).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2010b). 학교와 사회의 소통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 2010.6.18(금) 보도자료.
- 김경애(2009a).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54호.
- 김경애(2009b). 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역할의 의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4).
- 김기연(2004). 정부 수립 이후 교육예산 편성 방향 및 제도 변천 등에 관한 연구(1971년~2004년). 교육과학기술부.
- 김득영·박경숙(2009). 가정·마을·학교 학습공동체 형성: 청계 학교불런티어(VIPS)의 운영사례. 제 4 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 학교의 지역자원 활용 활성화 방안 자료집.
- 김윤정(2010). 창의적 체험활동의 필요성과 방향. 우리교육의 현실, 변화의 마지막 기회. 과학창의 칼럼. ScienceTimes. 2010년 08월 05일자.
- 김재홍(2010). 미국 창의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다. 교육개발 통권 171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경(2010). Driving from Innovation to Creation. 한국교육개발원 월례조회(2010.7.19) 발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 양병찬(2007).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중요성.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 담당자 WORKSHOP. 교육인적자원부.
- 원광연(2010). 창의성 배양을 위한 과학과 예술의 융합. 한국교육개발원 월례조회 강의자료.
- 이혜영 외(2006).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2009).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인천서부교육지원청.
- 한준상(2009). 生の 癡: 배움. 서울: 학지사.
- 현대경제연구원(2009). 2010 글로벌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09-51(통권 380호). 현대경제연구원.
- 홍영란 외(2006).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Bernstein, R & Bernstein, M. (2010). 예술이 중심이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기조연설 자료.

- Chadsey, T. (2008).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리트릿에서의 배움과 창의성. 서울 청소년 창의성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
- 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 (2001). The Connexions Framework for Assessment,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view. 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 DfES Publications: Nottingham.
- Feldhusen, J. F. & Treffinger, D. J. (1980)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in gifted education, Dubuque, IA: Kendall/Hunt.
- Hoggarth, L. & Smith, D. (2004). Understanding the impact of Connexions on young people at risk DfES Research Report RR607, Nottingham: DfES
- Israel, G. D., Beaulieu, L. J. and Hartless, G.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 43-68
- Moran, S. e John-Steiner, V. (2003). "reativity in the making: Vygotsky contemporary contribution to the dialectic of development and creativity" In: SAWYER, R.K. et al, Creativity and development, Nova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01). What schools for the future? Paris: OECD.
- OECD(2003a). Schools and the Future. Paris: OECD.
- OECD(2003b). Schooling for tomorrow: OECD Scenarios. Paris: OECD.
- Root-Bernstein, R. S. & Root-Bernstein, M. M. (2001). Sparks of Genius: The Thirteen Thinking Tools of the World's Most Creative People. 박종성 역 (2008). 생각의 탄생. 예코의서재
- Sliwka, A. (2003). Networking for educational innovation: a comparative analysis, in OECD(2003). Networks of innovation, Paris: OECD.



주제발표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 협력 방안 탐구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박성숙(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장)

I. 부천시의 현황

1) 학교

부천시는 전체 인구 약 90만, 청소년 인구 약 21만 명의 서울 근교 도시이다. 서울의 확장과 함께 외형이 커진 수도권 위성도시로서 아직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의 지역 간 격차문제이다. 소득수준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스포츠 시설의 지역 불균형문제 등이 생활수준의 차이, 상대적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에는 총 123개의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9개교이다.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육 수준은 낮은 편이고, 여러 형태의 청소년 비행율은 높은 지역이다.

이런 환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잇는 순환 메커니즘이 신도심과 구도심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 고착되어 가고 있다. 가장 학력수준이 낮고 비행율이 높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로 진학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고, 학교의 고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가 유형화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문제의 원인으로 낮은 자존감을 든다. 빈곤, 가족해체, 낮은 이웃의 지지도가 저조한 학업성취와 함께 청소년 비행율을 높인다. 학업성적 만을 기준으로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학교사회에서 일찌감치 자신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문제와 비행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투자에 대비하여 저조한 교육효과(상위권 대학조차 국제경쟁력은 낮다)의 문제,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받은 아이들의 일탈문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결국, 다양한 경험과 체험 속에서 실패와 재도전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교육실패의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교과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분류해 놓은(분류방식의 문제는 덮어두더라도) 창의적 체험학습이 교육의 근간을 새롭게 다져보고자 하는 노

력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여기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이라는 현실이 닥쳐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 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신청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실수업 외 더 다양한 활동기회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가, 혹은 기회 불균등과 교육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사회환경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고립된 섬으로 남을 수 없다고 점점 더 외치고 있다. 즉, 학교 내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청소년 역량개발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이라는 세 영역에서 강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

2) 지역사회

부천시에는 청소년 자원이 많지 않은 곳이다. 청소년 인구 21만의 도시에 청소년 수련관 2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개소, 여성청소년쉼터 1개소가 전문 청소년 기관이다. 더구나 각 시설의 규모나 전문지도인력의 수, 연간 사업비 예산수준 등은 인근 타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다.

반면, 청소년기관 운영체계 면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처음부터 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집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거의 전액을 시의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사업수입을 통해 운영비나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기관의 여건을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방식을 초기(1999년)부터 네트워크형으로 만들어 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 비영리기관(행정기관, 청소년 전문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 복지, 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개별 기관의 운영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 부족한 시설 수를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협력사업, 연계사업, 공동운영사업들이 부천시만큼 많은 지역도 드물다. 주말의 차 없는 거리는 한 기관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하

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청소년 소식지 발간과 배포, 청소년 포털사이트(딩가딩), 기자단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 음악, 댄스, 영상 등 영역별 동아리연합회의 기관별 분담, 지역 청소년축제 진행과 축제기획단의 연합운영 등이 있다.

이제는 연계와 협력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서 부천시 청소년 지도자연합회 ‘푸른모임’의 월 1회 실무자 정례회의, 월 1회 지도역량 강화교육, 상반기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워크숍, 하반기 당해 연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의 틀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네트워크의 근간은 지역사회 청소년의 실태분석과 욕구수렴, 욕구에 기초한 자원개발이라는 관점의 유지이다. 특정 욕구에 대한 대처(시기별 청소년 의제 형성)가 필요할 때 시설·기관자원, 전문인력자원, 재정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연대와 협력의 성공적 경험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림 1 부천시 청소년 실무자 네트워크 ‘푸른모임’ 회원 구성]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문의 네트워크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방과후 지원센터 등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연계와 협력의 욕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체(교육지원청, 학교, 교사)를 찾지 못했다.

2011년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위 CRM(Creative Resource Map)을 그리면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에 대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지역사회 교육자원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자료만 하더라도 이미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정책(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을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등)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박물관 1회성 견학, 문화공연 단발성 관람, 지역기관에 의뢰한 외부강사 파견사업 수준이다. 청소년(학생청소년 뿐만 아니라 탈학교청소년을 포함하여)을 중심으로 진정한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II. 교육-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탐구 (사례)

1) 교사-지역사회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

학교-지역사회 연계란 무엇인가?

학교 차원에서 보면 지역사회 시설이나 문화자원의 이용(박물관 등), 학생 의뢰(의료지원, 상담, 심리치료 등)가 절실하다고 느낄 것이다.

지역사회 공공기관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거나 동아리연습실, 체육관 같은 시설을 학교에서 이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교육예산의 증가와 함께 기관수입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부친은 시설과 인력자원은 넉넉하지 않지만 수련관 2곳을 공공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장점을 살려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전문기관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동안 지역 청소년 정책수행에 있어서 청소년 분야의 사업이 시범 운영에 그치는 양적 한계와 교육·노동·문화예술에 밀려서 주변부적 사업에 머물러 있던 질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스포츠·복지·자연환경 등의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 교육과 연계하는데 청소년 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어디로부터 이러한 가능성의 실타래를 찾을 것인가?

먼저, 학교교육 주체와의 연계가 있어야만 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다. 부천의 경우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배움의 공동체’ 학습동아리 교사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대부분이 전교조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의 변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다. 교사-학생의 진정한 신뢰 회복을 통한 학교혁신과 다양한 체험 중심 수업으로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고민하는 교사들을 만난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섬처럼 존재하는 학교의 현실을 비판하고, ‘교사는 교문 밖, 심지어 자기교실 창문 너머의 세계에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스스로 반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동시에 보지 않고는 진정한 학생과 교사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나아가 학교 안 아이들의 문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푸른모임’과는 별도로 2011년 4월부터 『교육-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시작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 각 2명과 함께 ‘연계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하여 시작된 모임이다. 청소년 수련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간절히 원하던 학교 파트너를 만난 것이다. 더구나 이 연구모임의 교사들은 개인 수준의 참여가 아니고 초, 중등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배움의 공동체’에서 파견된 형식을 띄고 있는 교사들이다. 현재 배움의 공동체에는 초, 중등 각 30여 명의 교사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2) 논의를 거친 몇 가지 연계의 원리들

연구모임에서 논의한 연계의 원리중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학교를 외면하거나 학교가 지역사회를 모르고는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교육도, 지역사회 활동도 결코 성공적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만으로는 다양하게 뿔어져 나오는 아이들의 욕구와 문제, 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그동안의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 필요에 의한 단순한 시설 이용, 방과 후 학교나 특정 교과시간의 강사파견 사업은 상호 교류와 연계라고 볼 수 없다.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지역사회 주체가 분명히 서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만 대등한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 수련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교에 강사파견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소외청소년 인성교육, CA강사 지원사업, 소외청소년 방과후 교육지원 등이 그런 경우이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경험은 축적되는 것이 없고 허망한 지원사업이라는 느낌이었다. 이런 허망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심정이 있었다. 교사들 역시 외부기관의 이런 사업으로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 오히려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사업은 번거롭고 귀찮은 행정업무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해왔다. 어떤 논리보다도 교육자로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이러한 반성에 대한 공감과 향후 연구모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셋째, 학교-지역사회 연계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정보공유, 시설이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상호 책임과 역할분담, 공동기획 사업까지 다양한 수준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지역자원이 있지만(최근 20여 년간 지역사회 복지, 문화자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상호 이해 부족 같은 작은 걸림돌에도 연계에 실패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성, 청소년 전문성, 지역성을 가진 청소년 전문기관이 지속적인 조정자(coordinator)-매개자(moderator)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연구, 연계지도, 예산 등 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과 기관이 필요하다. 당연히 매개자, 조정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수준에 따른 계속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은 전체 직원의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였다

다섯째, 여러 가지 현실에 맞는 연계와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논의만 가지고는 현실감 있는 '연계체계 구축'에 접근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더라도 실질적인 연계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사례만 가지고 일반화, 보편화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논의과정(정례회의)을 통하여 경험을 보다 일반화 시켜나가기로 하였다.

3) 연계·협력사업 모형개발

각 학교 급별로 지역사회 연계형 사업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연계사업에 요구되는 지역자원(시설이나 공간, 전문인력,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예산 등)은 청소년수련관의 매개자·조정자 역할에 맡겨보는 방식이었다.

① 초등학교

참가 교사의 욕구에 따라 4학년 1개 학급의 ‘전체 반응집력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이 주제로 선정되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중심으로 끼리모임이 이루어지는 교육폐단에 대한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전체 반응집력 향상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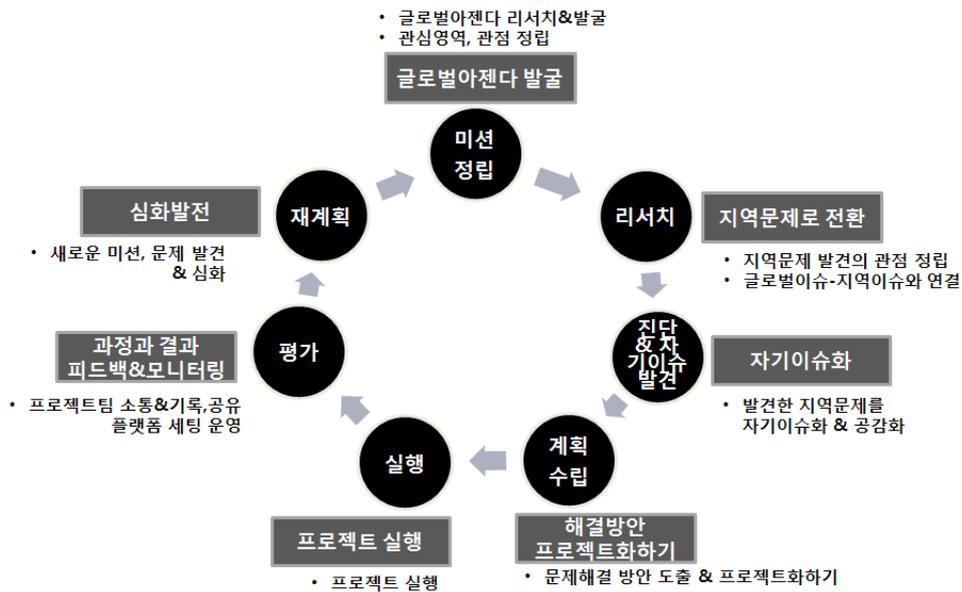
1박2일의 숙박프로그램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시설자원으로는 부천문화재단의 연수원이 결정되었다. 운영인력으로는 교사와 청소년지도사가 중심이 되기로 하였다(사실, 교사와 청소년지도사만큼 교육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강사의존형 사업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여기에 지역극단 ‘노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극놀이 콘텐츠를 결합하면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이렇게 하여 00초등학교 4학년 0반 담임교사, 부천문화재단 연수원,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극단 노플이 초등학교-지역연계사업을 위한 기획팀을 구성하였다.

소요되는 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숙박비와 식비는 학생들의 자비부담으로 해결되었다.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의 경비소요가 없으며, 극단 ‘노플’의 경우 공공문화기관 상주단체로서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해결이 되었다. 당연히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와 함께 지역차원의 재정개발도 논의될 것이다.

②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진로교육의 방향모색이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었다.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시범운영 모형으로 제기된 프로그램은 중학교 수준의 ‘소그룹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지역 사회 워크숍 전문팀(예비사회적기업) 자유상상캠프, 부천희망재단(모금전문 지역재단)이 함께 하였다.

프로그램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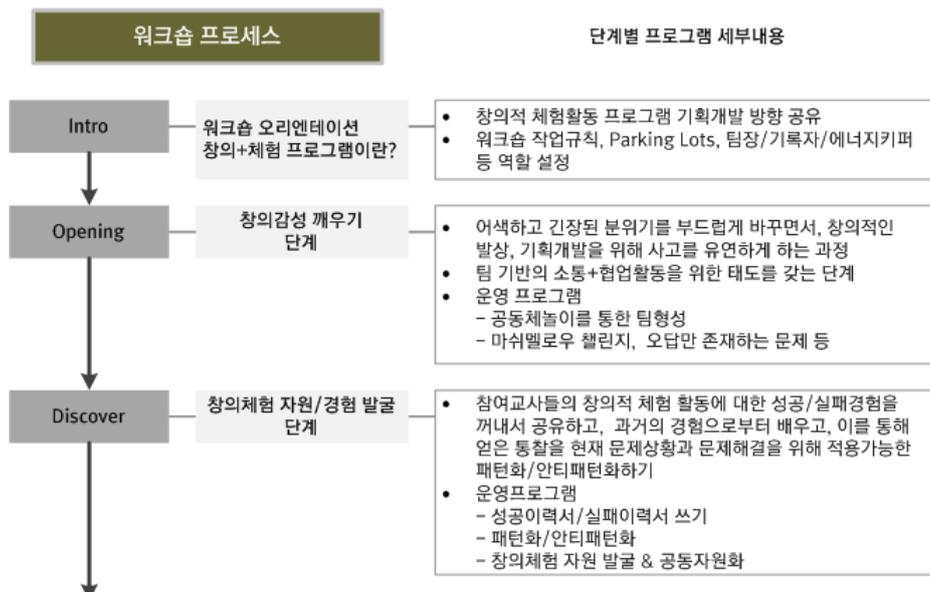
[제공: 2011 예비사회적기업 자유상상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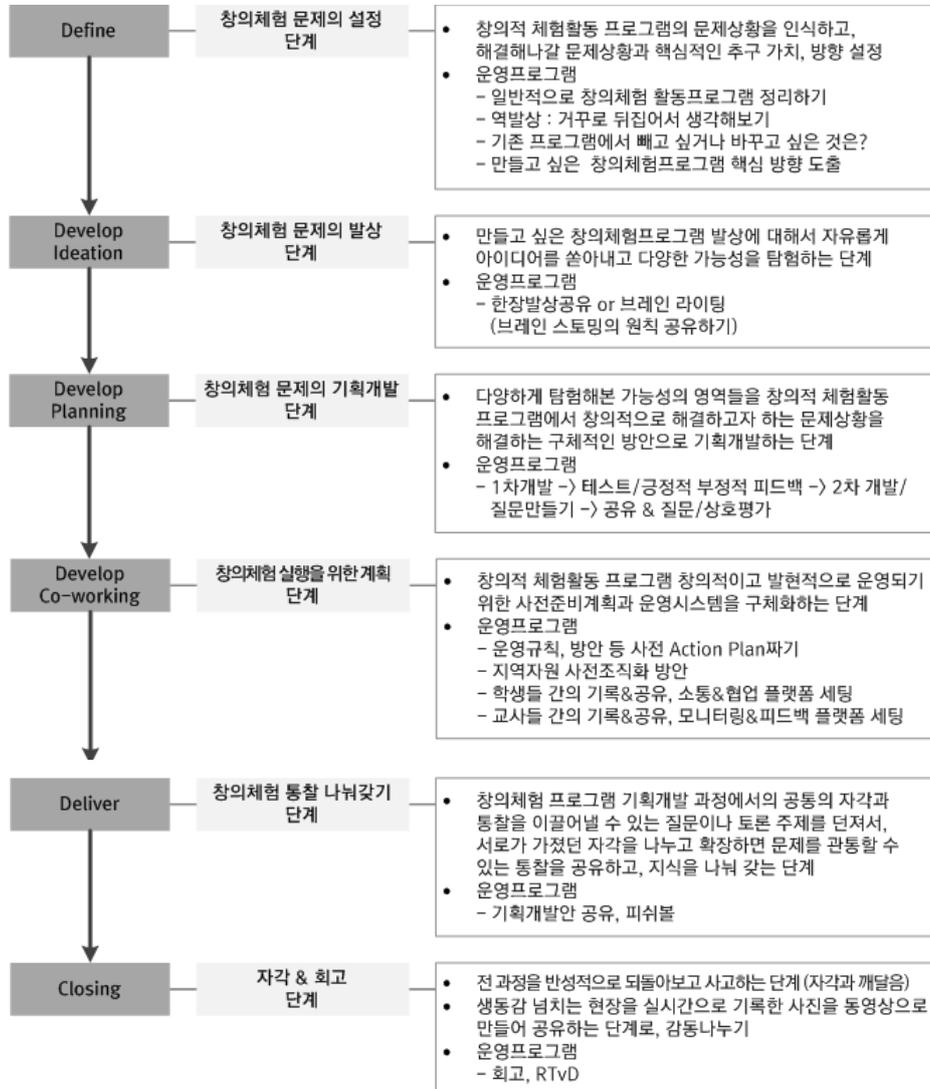
소그룹 코디네이터로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인 정보와 자료제공, 교사지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워크숍 팀은 프로그램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활동기법의 개발과 함께 교육적 요소추출 등 DB구축과 총괄기획을 담당한다. 모금전문재단에서는 미션을 ‘나눔’으로 설정한 전문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에 의미 있는 청소년 소그룹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기부기업이나 단체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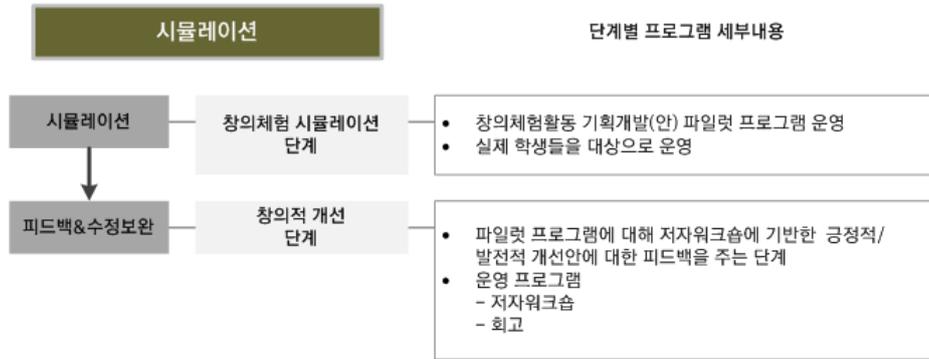
이 프로그램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지역사회 전문 모금재단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지는 의미이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변화계획을 자원과 연계시키는 사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나눔' 과 '지역공동체' 의 의미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청소년들을 만들어 내는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③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사례는 특이하다. ○○고등학교의 1학년 부장교사가 모임 초기부터 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마다 의지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학년부장이 강한 수행의지를 가지고 있다. 주 2시간의 전담시간 배정과 반별로 담임교사들의 운영계획을 받은 상태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서를 함께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인식과 창의성, 기획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국, 여름방학 시작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획과 과정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유상상캠프(워크숍기획 전문 예비사회적기업)와 청소년수련관, 학교가 함께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워크숍팀의 강사료는 청소년수련관의 강사비 예산지원과 학교의 일부 부담으로 해결되었다.







[제공: 2011 예비사회적기업 자유상상캠프]

④ 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적 조정자 역할 시도

④-1. 예술단의 재능기부와 학교연계

부천문화재단의 임무중 하나는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재구성이다. 이러한 취지로 기획공연 중 '뮤지컬 오디션'의 한 타임을 공연단으로부터 재능기부 받았다. 부천문화재단은 재능기부 받은 공연을 문화소의 청소년들에게 기부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하였다.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을 파악한 후 부천의 구도심지역 중에서 특히 환경이 열악한 중학교를 선정하여 공연관람을 제안하였다. 전교생 780명 중 급식지원학생 400명과 3학년생 200명을 초청하였다.

이런 제안이 처음인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골치 아프다' 같은 소극적인 반응에서부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선생님들까지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교사들이 공연관람을 결정하였다.

600명을 시간 내로 운송할 수 있는 교통편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시청에 차량지원 요청부터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 결국, 아이들을 조금 일찍 귀가시키고(여름방학 종강식 날이었다) 각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모인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학교의 학생관리 관행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우리는 이런

우리나라 교육관행 속에서 지역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 두 명의 교사가 그룹별 점검을 (필요하다면) 하면 될 것인데 모든 선생님이 반별로 학생들을 점검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과외업무로 귀결 되는 옥의 티가 있기는 했다.

이런 교육현장의 현실이 경직되고 관료주의적인 교사들의 문제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 작은 사고에도 교사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적·경험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교육환경도 나아지리라 믿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노력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연계의 또다른 조건인 것이다.

아무튼 부천문화재단의 공연기획에 청소년을 위한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고, 평생 처음 공연장을 구경한 학생들은 뮤지컬의 신명과 감동을 가지고 행복한 방학을 맞이할 수 있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무료관람이라는 허접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연장 입구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서 행복한 공연’이라는 현수막으로 작은 장치를 하기도 하였다. 더 신나게 공연을 즐기게 하기 위해 작은 선물로 야광봉을 제공하는 것도 덧붙였다.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연을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④-2.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진로교육 길찾기 토론회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잡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진학교육에만 매달려온 선생님에게는 더 어려운 주제이다. 진로교육, 취업·직업체험, 직업교육 등 용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작은 간담회 예산을 받았다(사실, 약간의 계획수정으로 소용되는 곳이 있으면 급하게 사용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부천 청소년, 진로교육의 길 찾기, I 탄』이라는 공개포럼을 시작하였다.

공개포럼 이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새로운 연계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를 대표할 수 있는냐는 우려도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 학교측으로 기운 학부모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만남과 상호이해의 과정을 통해 불확실한 추측과 불안의 상당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 부천시 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간 연계모임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Ⅲ. 향후 과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서비스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중심이었다. 기간, 참가자 등이 정해져 있는 닫힌 구조의 프로그램 속에서 연계란 참가자를 모집하는 일방적 홍보 수준에 그치게 된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가 정부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특정 프로그램 외에는 대부분이 유료이다. 이런 형편으로는 지역사회 연계를 논하기 어렵다.

박물관, 문화재, 공연장 등 시설자원은 학교에서 교과 급별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교재, 해설사, 체험활동 등)가 미비하고, 운영시스템(차량편, 입장료, 참가비 등)이 학교실정에 맞지 않음으로써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학교는 지역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노력 없이 편의적인 방법으로 상부지시를 행정적으로 이행하는데 급급한 관행적 태도로 일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진정한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오로지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문제는 지역사회 문제의 축소판',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체험활동 기회제공'이라는 과제만 바라보면서 뛰고자 한다. 학교 급별 시범사업을 통하여 연계의 원칙과 방안 찾기에 자신이 생기면 지역사회 전체로 이러한 모형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다. 학교-지역자원 연계의 일상화, 지속화, 다양화를 위한 체계(system) 구축과 발전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부천시에서는 우리들의 시도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현재 연구모임 교사들이 개인 수준에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공동체에서 파견된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 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물론, 부천시 청소년수련관도 개별 기관의 수준에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기관 네트워크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부천시의 지역사회 청소년 공공기관 네트워크의 다양한 연계와 협력의 경험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점이다.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학교-지역사회 연구모임과 푸른모임의 통합적 운영을 꾀할 것이다. 진정한 청소년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 복지, 활동, 지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협력이 가능해 짐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청소년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번 시도가 몇 가지 제한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신뢰나 연계 원칙들이 언제라도 변화 가능하다는 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 단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나 단위사업으로서의 연계협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지속적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진심과 열정만은 놓치지 않으려 한다.

부천시는 지역사회 청소년 실태와 욕구분석,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부서를 통해 들어오는 청소년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재단 건립을 검토하는 시점이다. 청소년수련관의 작은 시도들이 지역 청소년 정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또한 같은 과제를 가진 다른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들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제발표 3

교육복지와 지역네트워크

부은희(노원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표)

1. 교육복지와 함께한 지역네트워크

가. 토대구축

1) 지역조사와 공동비전 수립

- 지역의 자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여 공유
- 조사된 지역자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수립
- 각 기관들은 이러한 공통주제에 대해서 합의
- 최종 판단의 기준을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중점에 둠

2) 자발적 네트워크화

가) 「노원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 2004년 11월17일 결성
-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는 교복투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장·강화된 형태
- 교복투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
- 교복투 사업에서 다루기 어려운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역할 담당

1. 추진배경

- 저소득 가정이 밀집해 있는 노원구 지역의 상황에 근거해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문화, 복지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필요.
- 노원구내 빈곤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유와 문제해결에 있어 단일 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협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 필요
- 빈곤·비빈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풍부하고 체계적인 지원 네트워크 도모

2. 목적

- ① 빈곤 아동·청소년복지 기본선 구축
- ②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교육 문화 환경 마련

3. 목표

- ① 지역사회교육문화 공동체 구축
- ② 학습, 정서, 복지, 문화면의 교육복지사업 협력
- ③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 마련
- ④ 기관고유사업의 공유를 통한 협의회 내의 역할 수행

⑤ 공동사업을 통한 기관협력체계 사업 수행

4. 참여단체 및 학교 : 56개소

○ 단체 (24개 단체)

- 복지관(10개) : 공릉, 노원1, 마들, 상계, 중계, 평화, 월계, 월계가정복지센터, 성모지역아동복지센터
- 비영리단체(5개) : 노원나눔의집, 굿네이버스, 엄마사랑지역아동센터, 마들창조학교, 등근나라 그룹홈, 나란히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시설(4개) : 노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노원청소년쉼터
- 네트워크(2개) : 노원교육지원센터
- 기타(3개) : 연아아동청소년발달센터, 경계선지원센터

○ 교육복지 관련 학교 및 개인(32명) : 교육복지 초등 15교, 교육복지 중등 15교, 교육청 PC

5. 추진체계

가. 운영위원회

- 1) 대표 : 부은희 사무국장 : 김경아
- 2) 운영위원 : 교육청(윤은주, 전미경), 학교(김원형, 변순희), 지역기관(이정은, 한지현, 성정아), 나란히센터(문소정, 심종미)

나. 분과 위원

- 1) 아동분과
 - 가족성장프로젝트 및 케어벨트 사업 지원
 - 사례관리자 교육 운영
- 2) 청소년분과
 - 청소년성장프로젝트 지원

- 아이들의 주도성을 담아가는 프로젝트로 성장하는 계기 마련
-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당당히 서 나가는 여행 지원
- 아이들이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여행 지원
- 실무자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여행 지원
- 학교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여행 지원

- 청소년 연구모임 운영 : 청소년의 이해 자료집 배포
- 청소년 문화실무자협의회 운영 : 지역 내 동아리 공간 마련 및 동아리지원
- 사례관리 실무자 교육 지원

다. 마을 공동사업 운영 지원

1) 마을 축제 지원

2) 마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실무자 성장프로젝트 지원

- 실무자 여행 프로젝트

-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실무자 맞춤 연수 진행(연차별, 단계별, 내용별)

마. 지역의 예산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 지역 재원 만들기

-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구축 지원 자금 마련

- 지역 실무자 여행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

나) 동별 교육복지실무자협의회

- 각종 단위별 사업별 교복투 사업과 관련된 협의체가 결성
- 지역별·학교별 정기적인 협의회가 진행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이 학생 관리 시스템 작동

- 동별 사업 및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및 역할을 분담 하고 보완하는 소통과 관계 맺기의 장으로 활용
- 기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아동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함
-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자원 개발 및 자원 공유 노력

구분	구성	추진내용
월계동지역	교육복지학교 6교, 월계/노원1복지관, 좋은이웃지역아동센터, 월계가정복지센터	·2009 사업계획 및 동별 공동사업 논의 ·지역 공동 성교육 운영 논의 ·지역 교육 협의 및 추진(2회) ·청소년사업 관련 및 청소년교실 운영과 예비중학교 준비 ·야간방과후교실 사업 협의 ·집중지원학생 사례회의
상계동지역	교육복지학교 4교, 노원나눔의집, 노원교육지원센터, 상계/중계복지관, 마음터지역아동센터	
중계지역	교육복지학교 4교, 마들/평화복지관, 엄마사랑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마들창조학교, 청소년수련관, 성모지역아동복지센터	
공릉동지역	교육복지학교 3교, 공릉복지관(내용에 따라 중계지역과 같이 진행)	

나. 재구조화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학교가 교육취약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노력
- 학교가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계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확대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에 역할분담
- 학교에서 전문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보급 및 교육 진행

2)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

-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예) 지역 축제, 에듀케어, 도서관 공동사업, 청소년 한마당, 우리 동네 알기 프로그램 등

3) 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

- 지역지원팀 구성 운영 : 사업운영 컨설팅 진행
-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에 지역별 정기적인 협의회 운영
- 지역교육청에서는 분야별 사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인력풀 양성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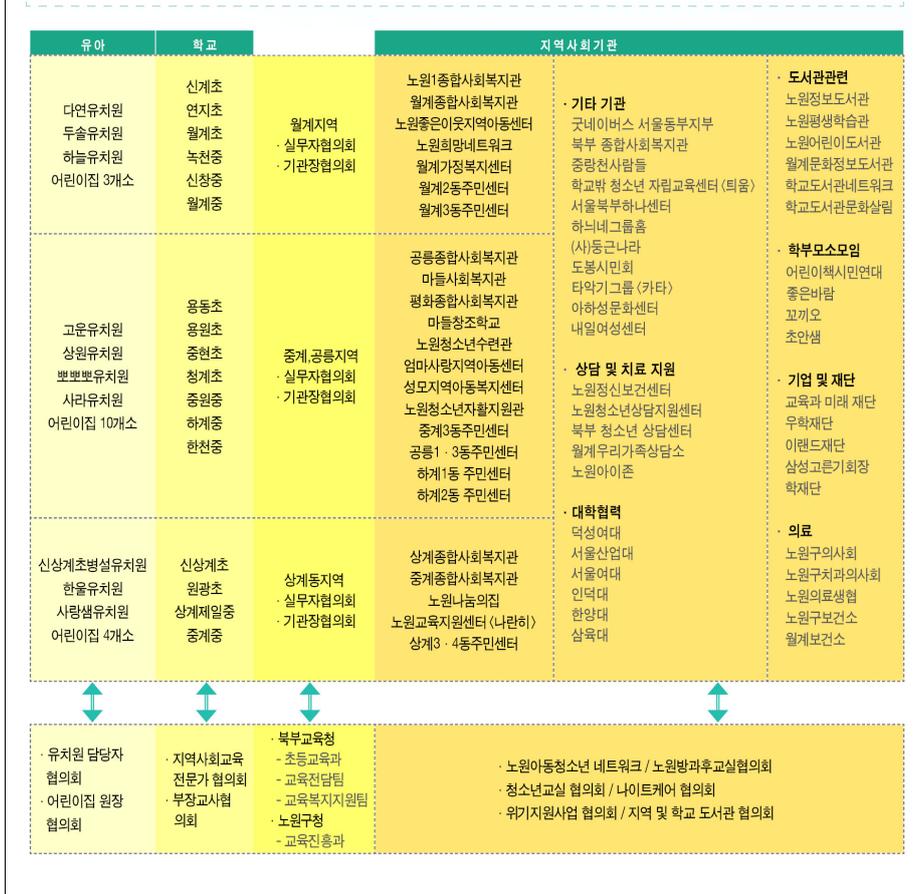
4) 자발적 참여 네트워크를 결성

- 지역의 각종 문화시설 또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발굴 연수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지역 대학 자원을 발굴

5) 구조와 역량의 질적 도약: 민관협력체제

- 지자체가 예산을 대응투자하고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함
- 2008년에는 지자체인 노원구청에서도 사업 예산을 확보
- 구청 조직 내 담당부서가 생기고 지역사회기관에 직접 예산을 교부
- 지역의 민, 관, 학이 함께 동등한 사업의 주체로써 세미나를 기획 운영

노원지역 교육복지 사업 추진 체계



2. 교육복지를 통한 노원 지역의 변화(2009. 김경애)

가. 학교

-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학교가 되어간다는 점
- 교육복지관련 사업이 학교 안과 밖의 자원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인식
- 지역의 기관 활동가들은 학교에 접근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는 일이 수월
- 학교가 학생의 문제를 드러내 놓고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
- 드러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다른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어떻게 해결해갈지 논의
- 학교의 교과과정도 변화

나. 지역사회 기관

- 지역사회기관들이 지역에서 '교육'의 주체로 세움
- 기관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대상이나 내용이 편성
- 교복투 사업을 통해서 지역 교육복지의 주체로 서게 된 기관들 수가 해마다 증가
- 기관들의 주력사업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교육복지를 위한 역할분담 및 역할 확장
- 교복투 사업 재원을 넘어선 지역의 기업 및 외부 기관의 지원 잘 굴
-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진행

다. 지역 교육여건

- 사람, 기관, 네트워크의 변화에 따라 지역 전체의 교육여건이 향상
-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 '성장 지원망'이 가능
- 지역의 교복투 망이 확대되어 지역 안의 네트워크 조직의 참여자로도 활동가 확대
- 주체별·활동영역별 네트워크가 활발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사업 능력의 확대
- 사업을 진행하는 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구축
- 상호 아동들을 위해서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위주로 판단

3. 지역 교육 네트워크* 발전 과정(2009. 김경애)

노원지역 사례에서는 교육지원을 위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역량을 가진 네트워크로 성장해온 실제 과정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실천영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역할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지역의 네트워크는 구조적으로 1) 핵심 인력 중심의 협의체, 2) 파트너십, 3) 공동사업 네트워크, 4) 구조화된 네트워크, 5) 자생적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첫째, **핵심 인력 중심의 협의체 단계**에서는 지역 네트워크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협의체가 결성되었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아닐지라도, 지역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룹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향후 본격적인 지역 네트워크에서 구심점으로 활약할 수 있는 중추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파트너십 관계 형성 단계**에서는 지역 내 관련 정보가 집결하여 재배치되는 집산지가 생성되었다.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련자원을 모으고, 관리하며, 재배치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지역 내 교육 요구와 가능한 자원이 상호 적절하게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자원과 요구에 대한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자원과 요구가 이곳으로 집산하게 된다. 협의회 내에서 네트워크 참여 주체들이 가져온,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는 역할과 책임의 분담을 전제로 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셋째, **공동사업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참여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생성해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 단계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참여 주체들이 기존의 자원과 기능으로 연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된 인식과 기능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구조화된 네트워크 단계의 특징은 그동안 지역과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형성되어온 네트워크가 **일련의 구조를 갖춘 체계**로 부상했다는 데 있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온 바탕

* 이 장은 김경애·김정원(2007)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위에서 비전과 기획이 현실태로 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참여자가 바뀌고 기존 사업이 종결되어도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체제가 구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생적 네트워크 단계**는 그야말로 외부의 어떤 상황 변동에도 지역 주민들의 능력과 재원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바라는 자립의 수준에 따라 영원한 미래형의 비전일 수도 있는 네트워크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사람과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기엔 뜻있는 자원들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이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생겼다면 일정수준의 자립성은 현재 진행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이상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사업 활성화 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연쇄적인 친분관계에서 도미노처럼 자원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며, 참여자들의 경우 단순 참여로 시작되지만 마침내 전적인 공유를 이루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공식·비공식적 만남 혹은 접촉의 기회가 끝없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며, 상호 호혜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해서 네트워크 주체들이 공동으로 탐구하며,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권한을 확보해가고, 참여자들 간에 서로의 감동이 전달되면서 자발성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